
정책참고자료

2017-2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평창에 세계 최초 5G 마을 조성	4
- 행안부-KT 손잡고 차세대 기술 접목된 '평창 5G 빌리지' 개소한다 -	

2 국민권익위원회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8
국민권익위, 반려견 관련 민원분석 결과 발표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과의 약속 “따뜻한 대변인”, 첫 실천	12
- 중기부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	

4 교육부

지역 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18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16
▶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선발 학생은 전 학기 등록금 지원	
▶ 기초·차상위 지역대학 의·약학계열 진학자 전 학기 등록금 지원	
▶ 전문대 지원 강화를 위한 성적 기준 완화(수능·내신 3등급 → 4등급)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19
-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과학놀이터’로 놀러오세요! -	

6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아트센터에서 문화올림픽을 즐기세요	24
- 12. 15. 문화올림픽의 상징 ‘강릉아트센터’ 준공식 개최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마련”	
	-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농지.자금.기술교육 등 종합지원 체계 구축	29
	- 청년창업농 중 1,200명 선발, 최장 3년 월 최대 1백만원 지원	
8	환경부	
	동강유역 생태 탐방안내소 4곳 새단장	
	◇ 원주지방환경청, 12월 22일 동강유역 탐방안내소 준공식 개최	37
	◇ 오래된 안내소 4곳, 동강의 4계절을 주제로 홍보·휴식 공간으로 개선	
9	고용노동부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41
10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합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44
11	국토교통부	
	12.21, 경강선(원주 ~ 강릉) 개통행사 개최	48
	서울-강릉 만나질 생활권...평창올림픽 50일 손님맞이	
12	해양수산부	
	완전양식 어린 명태 15만여 마리, 동해바다로 떠난다	54
	- 1215 강원 고성군 대진항에서 인공 2세대 어린명태 방류.. 명태자원 회복 기대 -	

인구감소지역 평창에 세계 최초 5G 마을 조성

- 행안부-KT 손잡고 차세대 기술 접목된 '평창 5G 빌리지' 개소한다 -

-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세계 최초로 5G (파이브지)에 기반한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인구댐'이 만들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7월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지로 강원도 평창군을 선정해 지원중이며, 민·관 협업 우선사업으로 KT와 함께 '평창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20일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KT, 강원도, 평창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석했다.
- '평창 5G 빌리지'는 국내 최초로 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마을에 '5G 네트워크 마을'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문객 유입을 높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자 KT의 12가지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킨 민·관 협업 사업이다.

< KT 12개 솔루션 목록 >

5D 네트워크 솔루션	관광활성화 솔루션	주민편의 솔루션
5G AR Market	관광안내 미디어월+드론	유해동물퇴치 솔루션
MR 매직 게이트	관광안내 AR 증강현실	스마트 캐비닛(무인택배함)
관광안내 홀로그램	포토존(힐링체어/가로등)	전기차(목장연계운영)
5G 네트워크 체험관	올림픽 콘텐츠(영상/성화봉)	화상회의시스템(문화교육)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강원도 평창 의야지 마을을 인구감소를 막는 '문화와 관광'의 거점마을로 만들기 위해 평창군과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평창 5G 빌리지'는

이런 평창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앞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 의야지마을에 농산물 홍보센터 및 주민공동체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활력센터’가 건립된다.
 - 이곳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해 관광상품화하고,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T) 솔루션이 구축되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U-care)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타운이 조성된다.
 - 또한 내년 8월 ‘지역활력센터’와 ‘신바람 광장’이 조성되면 KT의 ‘평창 5G 빌리지’와 함께 동반상승 효과를 발휘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도 민·관 협업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읍·면·동 거점마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은 생활여건 개선분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분야, 지역활력 제고분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분야 등 5가지 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 * '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평창군, 음성군, 예산군, 정읍시, 고창군, 강진군, 영양군, 하동군, 합천군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평창 5G 빌리지’ 개소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인구감소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민·관 협력모델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평창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7. 8. ~ 2018. 12.
- 사업비 : 총32억(특교세 10억, 지방비 7억, KT 15억)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1,700백만원 >

- ▶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력센터 및 신바람 광장 조성** : 1,450백만원
- ▶ **ICT 기반 스마트 타운 조성** : 250백만원

< KT 사회공헌사업 : 1,500백만원 >

- ▶ **IT 관광 안내소** 구축(189㎡), ICT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
- ▶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 / 홈 IoT서비스** 구축
- ▶ IT 교육 및 글로벌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

- ▶ 기가 프로젝트 협약 : '17. 8. 23 (강원도, 평창군, KT)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8. 31
- ▶ 스마트타운 조성 맞춤형 컨설팅 : '17. 8. 3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주민설명회 개최 : '17. 9. 13
- ▶ 사업예산 편성 : '17. 9. 18 (2회 추경)
- ▶ 지역활력센터 구축 주민 의견수렴 및 기본설계 추진 : '17. 9. ~ 11.
- ▶ 지역활력센터 주변 환경개선 공사 시행

□ 향후계획

- 지역활력센터 및 신바람 광장 실시 설계 : '17. 12. ~ 3.
 - 건축규모 : 지상3층, 380㎡
 - 기능 : 농산물 홍보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등
- 지역활력센터 및 신바람 광장 공사 : '18. 4. ~ 8.

참고2 | 평창 5G 빌리지 구축 및 운영계획

□ 구축현황

■ 구축현황



[5G 빌리지]



[정보화교육장]

- 5G빌리지 구성
 - (1층) 대관령 관광안내소 + 카페 + 농산물판매장
 - (2층) 5G 네트워크 전시관(올림픽 이후 IT 전시관으로 운영 예정)
- 정보화교육장 운영
 - 마을 IT교육장 + 화상회의장 + 만들기체험 진행관

□ 운영계획

구분	역할	운영계획
5G 빌리지 및 교육장	운영자	○ 마을운영 위원회 구성 - 주민+KT+평창군+하늘목장/삼양목장 참여
	KT	○ 통합 지원 및 IT 전시관 업그레이드 - 운영 인력양성, MWC, WIS 등 전시품 재배치
	평창군	○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 디자인 개발 - IT 교육추진 및 마을 상품포장 디자인 지원
	마을주민	○ 유지에 대한 협조 (행사/수익금 활용 등) - 카페 및 농산물 판매장 운영 수익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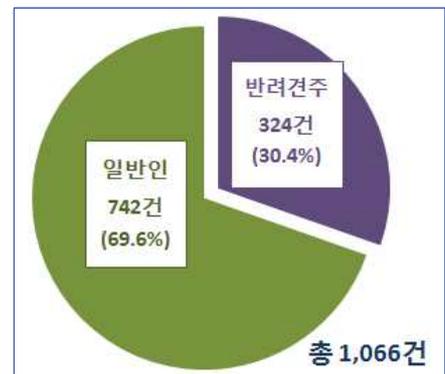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국민권익위, 반려견 관련 민원분석 결과 발표

-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변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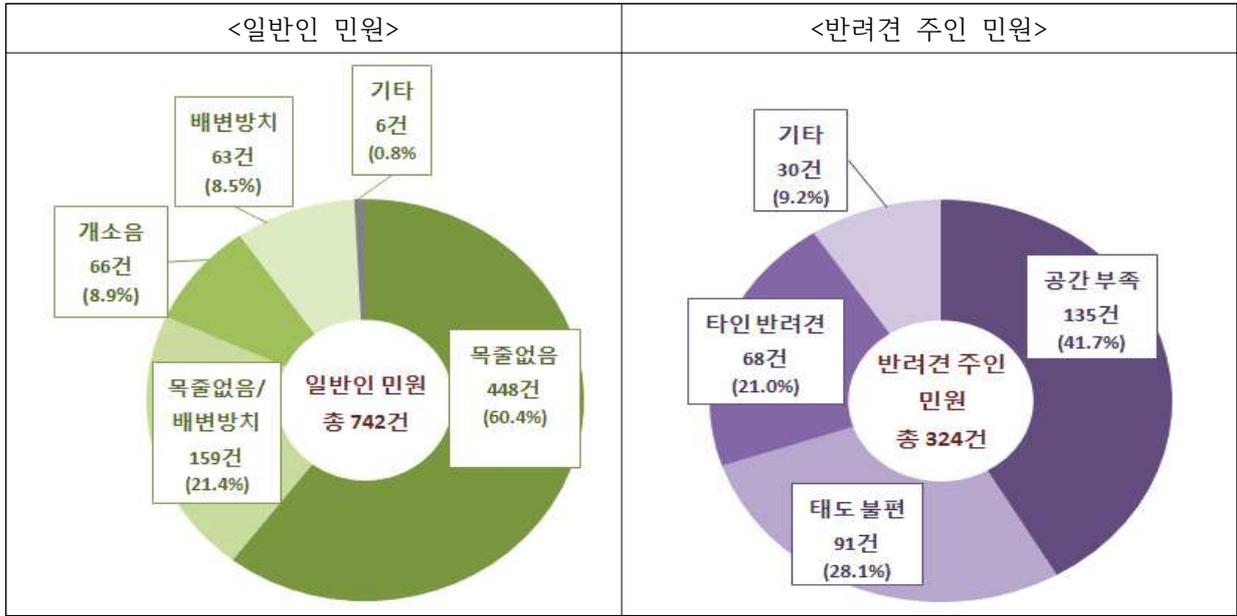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반려견 관련 민원 1,066건의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 민원 건수는 일반인이 제기한 민원이 742건(69.6%)으로 반려견 주인이 제기한 324건(30.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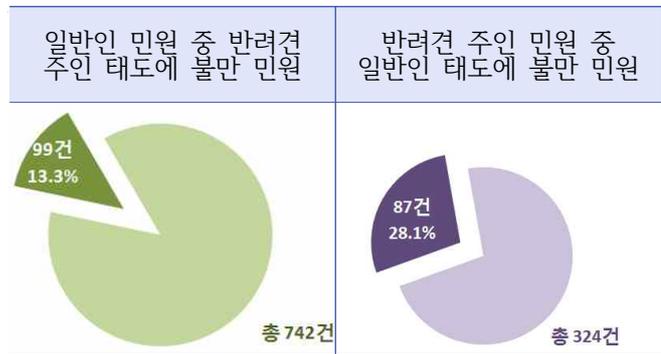


일반인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불만이 4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줄 미착용과 배변 방치 중복(159건), 개 짖는 소리(66건), 배변 방치(63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반려견 주인은 공원, 학교 등에 출입 제한을 당하거나 산책 공간 부족 등에 따른 불편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속자와 일반인의 부당한 태도(91건), 다른 반려견으로부터 피해(68건)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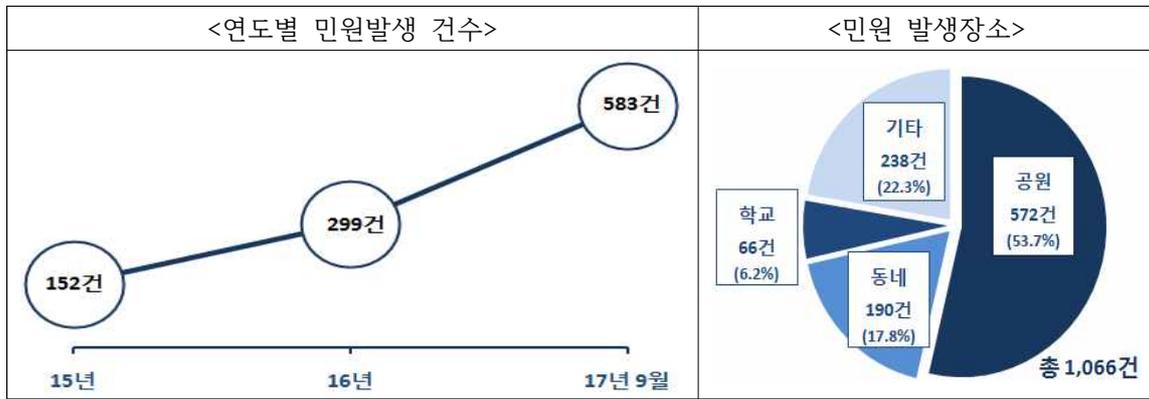


특히, 국민권익위는 일반인의 13.3%, 반려견주의 28.1%가 상대방이나 단속원의 부당하고 무례한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감안할 때 상호간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반려견 관련 민원은 '15년 152건에서 '16년 299건으로, '17년에는 9월까지 583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원 발생장소는 공원(572건), 아파트.골목길 등 동네(190건), 학교(66건) 순이었다.



민원을 처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77.9%(830건)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 13.2%(141건), 교육청 5.5%(59건)이 뒤를 이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일반인과 반려견주가 상호 이해·존중하기 위한 펫티켓*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펫티켓 :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

[일반인]

- 장애인인 지인과 산책 중에 갑자기 개가 지인에게 다가와 짖으며 위협을 가하길래 급히 개를 뒤로 물러나게 했음. 그러자 반려견 주인이 ‘물지도 않는 개한테 왜 그러느냐, 개가 화가 나서 더 그러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고, 개에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에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음. 일이 커질까봐 일단 피했음. 곳곳에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현수막이 있는데도 여전히 목줄 없는 개가 많고, 직접 신고하려면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이 필수라는데 한 동네 주민끼리 사진 촬영은 쉽지가 않음. 해결책으로 분쟁 시에 증거자료로도 활용하고 반려견 주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주기 바람 (17년 7월)
- 밤에 공원에서 산책중에 목줄 풀린 개에 놀란 아이가 다치는 사고를 목격함. 반려견 주인은 목줄 채우라고 소리치는 부모와 울고 있는 아이한테 적반하장격으로 욕하며 협박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사과를 했음. 과태료 부과여부를 문의했더니 경찰은 목줄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는 구청 소관이라고 함. 개 때문에 사고나 다툼이 생겼을 때 신고나 해결방법을 알 수 없어 불편함. 현수막이나 안내판에 신고 전화번호, 처벌내용을 표기해서 홍보하고 무례한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주기 바람 (17년 3월)

[반려견 주인]

-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항상 목줄을 채우고 비닐, 휴지, 물티슈를 챙기고 있음. 그런데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서 동네 노인들이 반려견을 공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 모욕, 살해 위협까지 하고 있음. 특히 여성 반려견 주인에게는 더욱 소리를 지름.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권한이 없다고 함. 배설물 치우라는 현수막만 달지 말고 공원이 반려견을 포함한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홍보 현수막도 달아서 선량한 반려견 주인도 보호해 주기 바람 (17년 3월)
- 반려견과 함께 ○○호수공원 피크닉장을 종종 이용함. 얼마전에 관계자들이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음. 법에 따라 목줄 착용 등을 준수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도 왜 출입을 금지하냐는 질문에 담당자 답변이 위생관리 때문에 금지하는데 눈치봐서 적당히 이용하라고 했음.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출입금지 현수막이 있음을 들어 시비를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목줄 및 배변 처리를 꼭 하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끝내 수용하지 않고 출입금지 현수막을 달았음. 법에 어긋나는 현수막을 철거 바람 (16년 10월)

소상공인과의 약속 “따뜻한 대변인”, 첫 실천

- 중기부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18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18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

하면 된다.

* 연말 중소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mss.go.kr, www.semas.or.kr)에
공고 예정

-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고용
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를 지원하는 사업

-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
(17.10월 기준 1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 59만 8천명)을 확대
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세부내용 (총 12.5억원)

- (지원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
 -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소득대체지표)로 1~7등급이 존재
- (지원수준)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2년까지 지원 (자부담 70%)
 - * 기준보수액 1등급 154만원의 2.25%
- (신청방법) '18.1.1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신청
 - * 자세한 사항은 12월말 공고예정인 사업공고문 참조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납부실적 등 확인 후 보험료 환급

참고 2

전국 소상공인시장지원센터 연락처(59개)

시도	센터명	전화	FAX	시도	센터명	전화	FAX	
서울 (02)	중부센터	720-4711	730-9360	제주 (064)	제주센터	751-2101	751-2103	
	동부센터	2215-0981	2215-0984		전북 (063)	전주센터	231-8110	231-8112
	서부센터	839-8312	839-8730	남원센터		626-0371	626-0372	
	남부센터	585-8622	585-8626	익산센터		853-4411	853-4413	
	북부센터	990-9101	990-9104	군산센터		445-6317	445-6316	
춘천센터	243-1950	244-9164	정읍센터	533-1781		533-1783		
강원 (033)	강릉센터	645-1950	645-3695	경기 (031)	수원센터	244-5161	244-5123	
	삼척센터	575-1950	554-1952		평택센터	656-5302	663-5302	
	원주센터	746-1950	746-1990		화성센터	8015-5301	8015-5304	
부산 (051)	북부센터	341-8052	342-8175		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남부센터	633-6562	633-0675		성남센터	705-7341	707-7345	
	동부센터	761-2561	761-2564		의정부센터	876-4384	876-4386	
	중부센터	469-1644	469-3286		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울산 (052)	울산센터	260-6388	260-2472		고양센터	925-4266	925-4269	
경남 (055)	창원센터	275-3261	275-3264		인천 (032)	안양센터	383-1002	383-0550
	진주센터	758-6701	758-7102			안산센터	482-2590	482-2593
	김해센터	323-4960	323-4963	남부센터		437-3570	437-3574	
	통영센터	648-2107	648-2109	북부센터		514-4010	514-4014	
대구 (053)	남부센터	629-4200	628-4314	대전 (042)	북부센터	864-1602	864-1606	
	북부센터	341-1500	341-3900		남부센터	223-5301	223-0665	
경북 (054)	안동센터	854-3281	854-3284	충남 (041)	천안아산센터	567-5302	567-5308	
	구미센터	475-5682	475-5681		논산센터	733-5064	733-5067	
	포항센터	231-4363	231-4364		서산센터	663-4981	663-4980	
	경주센터	776-8343	776-8346		공주센터	852-1183	852-1186	
광주 (062)	남부센터	366-2122	366-2136	충북 (043)	청주센터	234-1095	234-1091	
	서부센터	954-2084	954-2085		충주센터	854-3616	854-3619	
	북부센터	525-2724	525-2726		음성센터	873-1811	873-1814	
전남 (061)	목포센터	285-6347	285-6349		제천센터	652-1781	652-1784	
	여수센터	665-3600	665-3607		옥천센터	731-0924	731-0926	
	순천센터	741-4153	741-4159					

지역 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18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 ▶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선발 학생은 전 학기 등록금 지원
- ▶ 기초·차상위 지역대학 의·약학계열 진학자 전 학기 등록금 지원
- ▶ 전문대 지원 강화를 위한 성적 기준 완화(수능내신 3등급 → 4등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2일 “2018년도 지역 인재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14년부터 시작된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8년에는 800억 원 규모로 약 17,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대상이다.
 - * `18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에 한함
 - 대상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대학이다.
- 각 대학은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선발한다.
 - 성적 우수 분야는, 4년제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특성화 분야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선발한다.
 - ※ 각 분야의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18년 지원부터는 저소득층 지역인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한다.

- 각 대학이 선발한 학생 중 기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우수 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일정한 성적 기준** 충족 시 전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4인기준)

** (계속지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B학점(80점 이상) 이상 취득,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 시 전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우선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8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전문대 지원 강화를 위해, 성적우수 자격기준을 '18년부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 ('17년)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18년) 내신 또는 수능 (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참고

지역인재장학금 2018학년도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방대학 유치·양성으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사업기간) '14년~

□ 지원 대상

- (대학)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17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대학*
* '18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예정대학 포함
- (학생) '18년 1학년(신입생)으로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18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지원 방식

- 각 대학은 성적기준 충족자 혹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 (성적우수 분야)
 - (4년제)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특성화 분야)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인재를 자체기준으로 선발
- (계속 지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4.5(B학점, 80점) 이상
- (소득 기준) 기초 ~ 8분위 대상

□ 지원 범위 :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 기준중위소득 100% : 재학기간* 등록금 범위 내 전액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 의·치학계열 12학기(6년),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8분위 : 1년간(2학기) 지원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시 전 학기 내 등록금 전액 우선

국내 최초,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과학놀이터' 로 놀러오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우리나라 미래인재인 어린이들을 위해 옛 국립서울과학관을 어린이전용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이정구)으로 리모델링하여 12월 21일(목) 14시에 개관식을 개최하고 12월 22일(금)부터 국민에게 공개하여 운영한다.

< 국립어린이과학관 개요 >

- ◇ 개요 : 조작하고(Hands-on), 감동하고(Hearts-on) 체험하는 과학놀이 공간(Science Center)
- ◇ 규모 : (사업비) 317억원, (건축면적/전시면적) 5,611㎡/ 4,858㎡, (전시물) 70개
-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7년 11월
- ◇ 주요시설 : 상설전시장, 천체투영관, 4D영상관, 과학극장, 과학놀이터, 생태온실 등
- ◇ 창의교육 :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40종), 전시연계 문화행사 및 기획전 등을 수요 맞춤형으로 기획·개발하여 운영 계획

-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어린이과학관')은 국가차원의 어린이를 위한 과학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과학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과학문화의 랜드마크로 설립했다.
 - 어린이과학관은 우리나라 제1호 과학관인 서울과학관(1972년 9월 설립)을 리모델링하여 지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과학관이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의 정신을 본받아 미래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 또한, 약 7~12세 또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도구를 직접 만지고 재미있게 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 어린이과학관 개관 축하식(12.21.(목))은 각계 대표*, 유튜브 스타인

허팝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 정부(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국회(오세정 의원), 학부모 대표, 지자체 및 관련유관기관 대표 등

- 특히, 오프닝 퍼포먼스는 상징조형물인 ‘우주와 시간’을 둘러싸고 어른과 어린이들이 두 손을 맞잡아 점등을 하면, 불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조형물이 움직이며 어린이과학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 어린이과학관은 조작하고(Hands-on), 감동하는(Hearts-on) 체험형 전시관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시품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한 과학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감각놀이터, 상상놀이터 그리고 창작놀이터 등 총 3개의 놀이터로 구성하였다.
- 1층에 위치한 감각놀이터는 성장 시기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감각체험 및 감성놀이 활동을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감각체험, 스포츠코너, 영유아 전용공간으로 꾸며졌다.
- 2층에는 관찰·탐구·실험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상상놀이터와 아트 스튜디오, DIY공방, 디자인랩, 도예체험공방 등을 통해 직접 그려보고, 만들면서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작놀이터(제작공방)로 이루어져 있다.
- 또한, 밤하늘을 보며, 우주에 대한 이야기와 학습이 가능한 천체투영관(79석)과 심해저 생물과 공룡들을 입체영상으로 즐기며 재미와 학습을 함께할 수 있는 4D영상관(48석), 과학연극과 뮤지컬, 과학쇼 등을 즐길 수 있는 과학극장(107석)도 새롭게 만들어 졌다.
- 어린이과학관은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및 주말(개관운영

시간 : 9시 30분 ~ 17시 30분)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www.csc.go.kr) 사전예약 신청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버스 : 명륜3가·성대입구 앞 정류장, 창경궁·서울대 학교병원 정류장

- 상설전시관 관람료는 어른 2,000원(단체 1,500원), 어린이·청소년 1,000원(단체 700원), 유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관람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른 20세 ~ 64세, 어린이·청소년 8~19세, 유아 8세 미만 /단체 20인 이상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은 ‘과학’이며,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과학관’”이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어린이과학관’에 자주 와서 마음껏 상상하고, 또 상상한 것을 체험하거나 과학적 도구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행사 개최(안)
2. 국립어린이과학관 현황

□ 행사 개요

- (목적) 우리나라 국립차원의 최초·최대 어린이전용 과학문화공간인 ‘국립어린이과학관’ 성공적 개관을 축하하고, 건립 유공자 포상·격려
 - ※ (건립배경) 원로과학자 등 5,446명 서명, 舊서울과학관 건물을 ‘과학관 용도로 환원’ 청원(’13.11)→ 서울과학관을 개축(’15~’17)하여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재개관
- (일시 및 장소) **12.21(목) 14:00~15:00**, 국립어린이과학관(창경궁로 215)

□ 주요 참석자

- 정부, 국회, 지자체, 초등학생(50명), 학부모, 언론, 관계기관 100여명
 - * 과기정통부 장관, 오세정 의원, 김명자 과총회장, 종로구청장, 허팝(크리에이터)

□ 주요행사 내용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축하행사		13:10~13:45	35'	어린이 대상 축하공연 (과학극장, 1층)	어린이 100여명
		13:40~13:58	18'	참석자 식전 티타임 (기획전시실, 2층)	각계 대표
개 관 행 사 1 층 중 앙 홀	공식 행사	14:00~14:02	2'	오프닝 멘트 및 국민의례	사회자 (임성민)
		14:02~14:04	2'	각계 대표참석자 소개	
		14:04~14:07	3'	개관 영상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과거, 현재 모습을 소개(허팝)	
		14:07~14:10	3'	축하메시지 영상 (각계 및 어린이 대표 등)	
	14:10~14:13	3'	유공자 포상 (수상자 대표 2인) 및 장관 말씀	장관	
	오프닝 (탄생)	14:13~14:18	5'		오프닝 퍼포먼스 (각계 대표 12명, 어린이 12명) * 카운트다운, 터치버튼, 드론비상(축하메시지)
14:18~14:20		2'	기념촬영 및 크로징멘트	사회자	
전시장 투어		14:20~15:00	40'	(1층) 상징조형물, 감각놀이터, 천체투영관 (2층) 상상놀이터, 창작놀이터, 4D영상관 * 어린이들과 자연스럽게 체험 및 격려	장관

붙임 2

국립어린이과학관 현황

□ 개요

- 舊 서울과학관을 어린이전용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문화공간으로 개축('15.9월~'17.11월)
 - (사업비) 317억원
 - (규모) 건축면적 5,611㎡, 전시면적 4,858㎡



□ 추진 경과

- '72. 9월 : 국립서울과학관 개관(창경궁로 215)
- '10. 6월 : 서울과학관 본관 부지가 문화재청으로 이전
- '13. 11월 : 원로과학자 청원으로 어린이과학관 추진

□ 주요시설 및 운영계획

- (주요시설) 천체투영관, 4D체험관 및 창작놀이터 등 신규 설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조작·체험형 전시품 비중 상향(10%→80%이상)

구분	舊서울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
기본 방향	보고(Eyes-on), 만지는(Touch-on) 나열식 전시(Science Museum)	조작하고(Hands-on), 감동하는(Hearts-on) 체험형 전시(Science Center)
대상	• 누리과정 및 초·중·고	• 초등학생 (만 7~12세)
전시 구성 및 주요 시설	• 상설전시장 - 물리(힘, 자석, 바람), 시각(빛, 색) - 수학 - 생활속 과학(화장실, 냉장고) - 에너지(원자력) - 어류수조, 화석 등 • 기획전시실(140㎡) • 과학놀이마당(만들기 코너)	(상설전시장 1층) - 감각놀이터(뇌와 인지, 스포츠, 아동전용공간) • 과학극장(공연 및 강의, 107석) • 천체투영관(직경 11m, 79석) (상설전시장 2층) - 상상놀이터(관찰, 탐구, 실험), 창작놀이터 • 창작놀이터(DIY공방, 아트스튜디오 등) • 4D체험관(48석), 기획전시실(330㎡) (옥상전시장) • 과학놀이터, 천체관측소, 생태온실

- (창의교육 및 행사) 코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40종), 전시연계 문화행사 및 기획전 등을 수요맞춤형으로 기획·개발하여 운영 계획

강릉아트센터에서 문화올림픽을 즐기세요

- 12. 15. 문화올림픽의 상징 '강릉아트센터' 준공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평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올림픽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강릉아트센터'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15일(금) 오후 2시, 강릉시 주관으로 준공식을 개최한다.

'강릉아트센터'는 빙상경기가 개최되는 강릉 올림픽파크 인근에 지난 3년간 총 476억 원을 투입해 신축한 대공연장(998석)과, 기존의 강릉 문화예술회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소공연장(385석), 전시관 3개소(1,088㎡),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조성된 '강릉아트센터'는 2018 평창대회 기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막식 공연을 비롯하여,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올림픽기념 행사·공연·전시 장소로 활용된다. 올림픽 이후에는 각종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영동·영서·동해권역의 공연 및 전시 등을 개최하고, 지역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강릉아트센터는 평창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는 상징적 건물이며,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 자원으로 사랑받을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어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2월 15일(금) 준공식 이후 오후 4시부터는 강릉아트센터의 첫 공연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Britain's Got talent)에서
우승한 팝페라 가수 '폴 포츠'의 내한공연이 열린다.

- 붙임 1. 강릉아트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계획(안)
2. 현장 사진

붙임 1

강릉아트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계획(안)

연 도	날 짜	내 용	장 소
2017	12. 19.(화)	뮤지컬갈라쇼 '천개의달빛'	대공연장
	12. 20.(수)	밴드 크로스오버 '하슬라리아'	소공연장
	12. 21.(목)	윈드오케스트라 '윈드로듣는O.S.T'	"
	12. 22.(금)	강릉시향 100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12. 23.(토)	강릉8개연합고교 '2017강릉관악제'	"
	"	한일교류음악회 '강릉에서도교까지'	소공연장
	12. 26.(화)	실내악프로젝트 '클래식레이디'	"
	12. 27.(수)	나윤선콘서트	대공연장
	12. 28.(목)	창작음악극 '월화전'	소공연장
	12. 29.(금)	강릉청소년연합합창 '0을위한 노래'	대공연장
	12. 30.(토)	새로운 지평을 향해	"
2018	1. 19.(금)~20.(토)	국립오페라단 '동백아가씨'	대공연장
	1. 24.(수)	국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
	1. 25.(수)	강릉시립합창단 칸타타 "한강"	"
	1. 27.(토)	월드뮤직음악 "푸너리 콘서트"	대공연장, 소공연장
	1. 31.(수)~2. 3.(토)	평창겨울음악제	대공연장
	2. 5.(월)	IOC총회 개최식, 국립무용단 '향연'	대공연장, 소공연장
	2. 9.(금)	일본현대무용 프로젝트	소공연장
	2. 10.(토)~12.(월)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허난설현'	대공연장
	"	해외 전통공연(중국, 일본, 베트남 등) 및 지자체 공연(울산, 광주광역시)	소공연장
	2. 13.(화)	강릉시향 신년음악회	대공연장
	"	정동극장 '청춘만발콘서트'	소공연장
	2. 14.(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대공연장
	"	폴란드 문화교류 피아노 공연	소공연장
	2. 15.(목)	뮤지컬 갈라쇼	대공연장
	"	세계 가곡의 향연	소공연장
	2. 16.(금)	평창겨울음악제 스페셜 콘서트	대공연장
	"	중국비파, 테헤신 카르마 프리 무용단	소공연장
	2. 17.(토)	양방언 콘서트	대공연장
	"	강릉시 단오향(15시)	소공연장
	"	김진묵 트로트밴드 공연(17:30)	"
	2. 18.(일)	팬텀싱어&쇼미더머니 공연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양양군)	소공연장	
"	개그콘서트	"	

연 도	날 짜	내 용	장 소
2018	2. 19.(월)	강원도립극단 '메밀 꽃 필 무렵'	대공연장
	"	난타	소공연장
	2. 20.(화)	뮤지컬 '정선 아리랑'	대공연장
	"	지역공연(횡성군, 인천광역시)	소공연장
	2. 21.(수)~22.(목)	한국문화재단 재단 코리아 심청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대전, 부산, 전북, 전남)	소공연장
	2. 23.(금)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서울)	소공연장
	"	강릉시립합창단 공연	"
	2. 24.(토)	국립현대무용단 '제전악, 장미의 잔상'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충남, 경기도)	소공연장
	3. 2.(금)	국립현대무용단 '쓰리볼레로'	대공연장
	3. 3.(토)	서울뮤즈원드오케스트라	"
	3. 4.(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
	3. 6.(화)	계촌,호명,솔향 유스오케스트라	"
	"	강릉 굿 위드 어스	소공연장
	3. 7.(수)	장예총 공연(미정)	"
	3. 9.(금)	강원도립극단 '메밀꽃 필 무렵'	대공연장
	3. 9.(금)~10.(토)	해외공연단 공연	소공연장
	3. 10.(토)	이마에스트리 오케스트라	대공연장
	3. 11.(일)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힐링음악회	"
	"	장예총 공연(미정)	소공연장
	3. 12.(월)	6개 시도 국악관현악단 '꿈의 축제'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태백시)	소공연장
	3. 13.(화)	똑같이 다함께 콘서트	대공연장
	"	하트 투 하트 오케스트라	소공연장
	3. 14.(수)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영월군, 대구)	소공연장
	3. 15.(목)	도립 무용단 '겨울 약속'	대공연장
	"	뮤지컬 '정선 아리랑'	소공연장
	3. 16.(금)	국립합창단 공연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동해시, 경북)	소공연장
	3. 17.(토)	The last concert	대공연장
"	지자체 공연(속초, 정선)	소공연장	

※ 상기 일정은 계획(안)으로 공연장, 공연 단체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 경



야 경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마련”

-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농자자금기술교육 등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청년창업농 중 1,200명 선발, 가장 3년 월 최대 1백만원 지원

《주요내용》

청년창업농 중심의 농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 ◆ ‘22년까지 농업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 ◆ 맞춤형 청년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
 - ① 청년창업농의 정착을 종합지원
 - 혁신 아이디어와 영농 비전 및 의지를 갖춘 청년창업농 선발
 - 농지은행 농지 임차·매매, 후계농 자금 등 창업자금 지원(농신보 우대 등), 임대형 실습시설 및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 영농창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농자·자금·기술교육 등 지원
 - 청년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 지원
 - ②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 촉진 및 청년창업농 성장 지원
 - 농고·농대생, 비농업 전공학생, 청년 귀농희망자 등 다양한 청년 유입 촉진
 - 첨단기술 활용능력 제고 교육, 농업 법인 등 협업 경영 활성화 지원, 농식품 벤처펀드 등 민간자본 유치 지원
 - ③ 청년창업농 육성에 지자체와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수립
 - 전국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발위원 및 모니터링단 참여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소통 채널 및 정책참여 강화
 - ④ 청년창업농을 농업 혁신성장의 핵심인력으로 육성
 -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팀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 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우리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1천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25년에는 0.4%(37백명)로 전망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청년 영농창업 및 정착지원 TF (단장: 농정국장)」를 구성하여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영농정착 애로(농경연, 복수응답) :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

□ 이러한 취지에 따라 '18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 독립경영: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을 수행

○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 신청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① (기반) 농지은행 농지임대* 및 매입 사업 최우선 지원(연간 3,500ha 수준)

* 특히 비축농지 임대는 최소 5년으로 하고, 벼외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 감면

- 자기 자본투자 전에 실제 영농의 소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신규 운영 * ('18년 신규) 3,000㎡의 임대농장(스마트팜 등) 30개소 조성

② (자금)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신보 보증비율 확대(90%→95%)

- 스마트팜(개인 30억원, 법인 50억원) 희망 청년농의 농신보 보증비율(현행 85%) 확대

③ (기술) 경영실습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영농기술,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신규 추진

* 농업법인 취업·창업희망자 150명 선발, 최대 6개월간 인건비 50%(최대 100만원) 지원

- 선도농가에서의 실습 지원(농진청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활용)

* 선도농가(멘토)에게 월 40만원, 청년 창업농(멘티)에게 월 80만원 연수비 지원(37개월)

- 경영진단분석시스템*을 통한 경영현황 및 기술수준을 진단·분석('18년~)

* 기술센터(컨설팅 요원)에서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수준을 진단 및 컨설팅

- 공동 법인 설립 시 우수 컨설턴트 우선 배정(농업법인 컨설팅 사업 개선)

□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17년 470명 → '18년 550)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 대학(5개교)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여나갈 계획이며,

*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년의 농업 분야 취·창업율 등 운영 성과 분석

○ 승계농 교육*을 강화('17년 1,000명 → 22년 2,000) 하고, 청년 귀농 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도 지원한다.('18년 신규, 50명, 6개월)

* 경영주(부모)와 승계자(자녀) 승계과정 갈등, 법률·세무 등 문제 등 교육

○ 그리고,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 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또한, 청년창업농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한다.

*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추진현황 및 계획 : (현재) 7개소 → ('18) 4개소 추가 지정

○ 청년창업농 및 이들이 설립한 농업 법인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연구 분야와 연구할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창업·벤처 기업에 바우처 지원(연간 5천만원 ~ 1.5억원)

□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추진에 지자체와 청년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

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시도 배정물량을 차등할 계획이다.

○ 그리고,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 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선배 청년농업인을 청년창업농 선발 시 면접 평가위원으로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 또한, 농업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대폭 반영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청년농업인과 전문가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표하고 있다.

○ 박상봉(26세, 강원 정선 청년농)은 “야간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영농초기 청년농에게 월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에 집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덕희(33세, 충북 제천 청년농)는 “농신보 보증비율이 확대되면 담보가 부족한 청년이 농지·시설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 농촌경제연구원의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비중이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처럼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17년 12월 28일부터 ’18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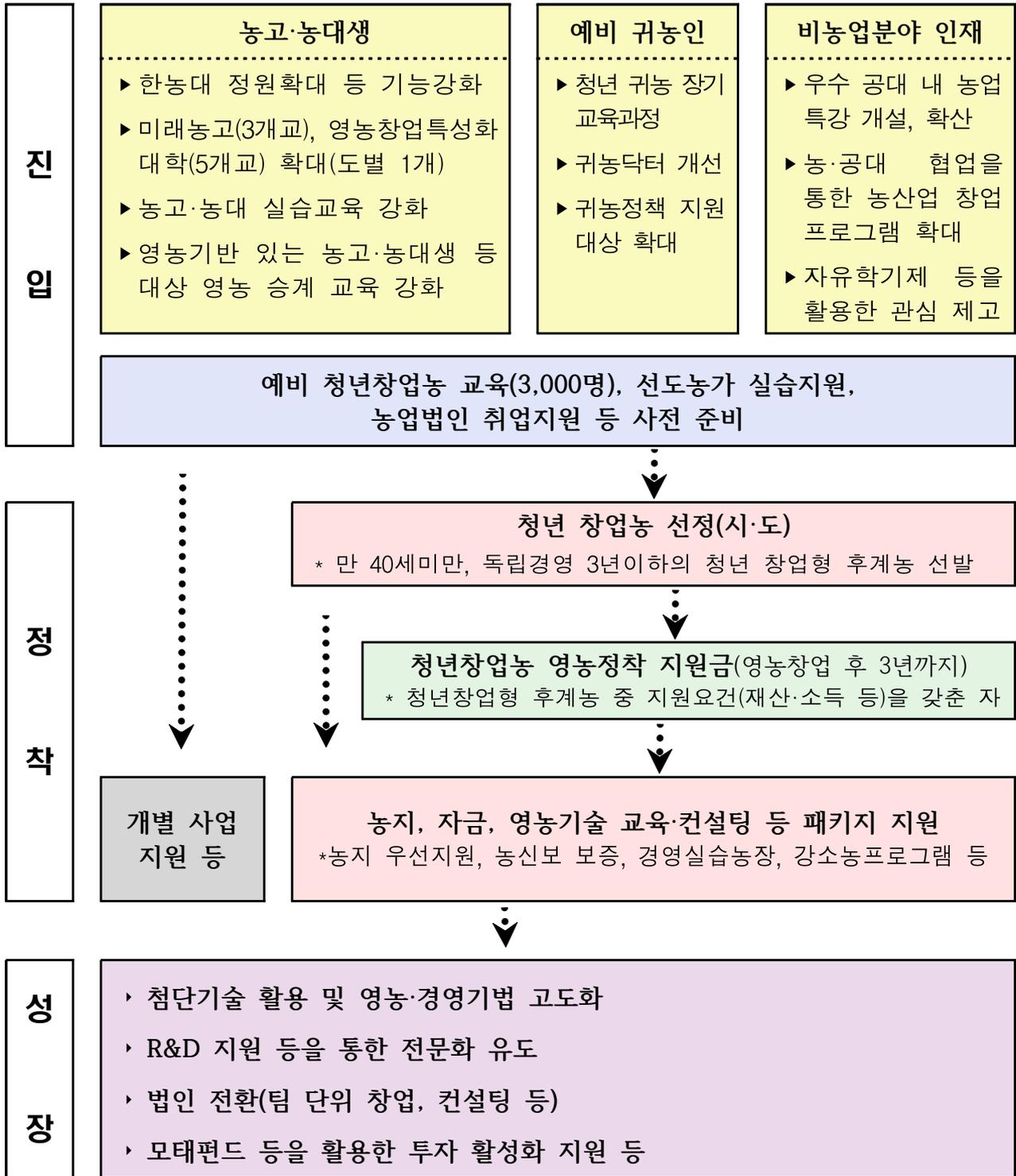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 추진일정: 지자체 사업공고(12.26~1.30) → 서류평가(2.5~2.23) → 면접평가(3.5~3.20) 및 사업 대상자 확정(3월말) → 지원금 사용(4월~12월)

참고 1

청년창업농 진입 및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22년까지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참고 2

청년창업농 패키지 지원 내용

< 청년창업농 패키지 지원사항 >

◆ 청년 창업농 선발 신청서(영농계획서 포함)에 본인의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영농기반 등 지원 필요 사항을 기재 → 청년 창업농 선발 시 관련 사업대상자에 포함

지원분야	관련사업	주요 지원 내용
창업초기 안정	영농정착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건) 재산·소득 일정 기준 이하 등 ·최대 100만원/월, 최장 3년간 * 1년차 : 100만원, 2년차 : 90, 3년차 : 80
농지	맞춤형 농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2ha, 임대 우선 지원
자금	후계농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3억원(기존 2억원)
	농신보 우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형 후계농의 후계농자금 대출 시 농신보 보증비율 95%(기존 90%)로 상향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경우 한도 30억원(개인), 보증비율 확대 추진
	귀농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촌 영농창업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농기계	농기계 임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임대 지원
컨설팅, 교육 등	경영실습 임대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을 갖춘 농장(3,000㎡이내) 임대(30개소)
	강소농프로그램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가의 경영진단, 처방
	영농정착필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역량(회계, 세무, 마케팅 등), 농업정책 교육 필수이수 및 영농기술 등 자율과정 이수
	선도농가실습지원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80만원 한도 교육훈련비 지원(창업예정자)
	경쟁력제고사업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신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개소 당 50백만원
주거	귀농인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임대(1년이내)
	체류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처 및 교육지원(1년이내)

동강유역 생태 탐방안내소 4곳 새단장

- ◇ 원주지방환경청, 12월 22일 동강유역 탐방안내소 준공식 개최
- ◇ 오래된 안내소 4곳 동강의 4계절을 주제로 홍보·휴식 공간으로 개선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탐방안내소 준공식'을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강원도 평창군 기화 탐방안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준공식에는 영월·평창·정선군 등 동강 유역에서 사는 주민과 환경감시원, 자연환경해설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2월부터 10개월 간 정선 광하, 평창 기화, 영월 삼옥, 정선 고성 등 오래된 4곳의 탐방안내소를 동강의 4계절 주제에 맞춰 홍보 및 탐방객 휴게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 정선 광하 안내소는 봄의 동강할미꽃을, 평창 기화 안내소는 여름 황새여울의 어름치와 늘푸른 담쟁이를, 영월 삼옥 안내소는 가을의 추억을 담은 사진을, 정선 고성 안내소는 겨울의 에스키모 이글루를 각각 형상화했다.
 - 각 탐방안내소에는 동강유역 생태탐방 명소, 동·식물 현황,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가치 등의 정보를 소개하며, 동강유역 입체 모형도, 홍보 영상, 방명록 게시판 등을 갖췄다.
- 탐방객들은 각 안내소를 통해 동강의 계절별 모습을 관람하고, 동강 유역에 대한 생태가치 및 탐방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동강유역 생태경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예방 및 감시시설을 확충했다.

-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불법행위의 우려가 높은 영월, 평창, 정선 일대 8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주민 환경감시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야간에 상습적인 불법 어로 행위가 빈발하는 지역에 바리 게이트와 적외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에 생태 탐방안내소를 새롭게 단장하여 동강유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지역의 생태 가치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동강 탐방안내소 시설 개선 준공식 개요.
 2. 안내소 4곳 사진.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12월 22일 오후 2시 30분 예정)

□ **추진 목적**

- 동강 탐방안내소 내·외부 시설 개선공사 및 관리초소, CCTV, 차량 진입 차단시설 등 감시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

〈 사업 개요 〉

① 탐방안내소 개선

- 위치 : 삼옥, 기화, 고성, 광하 등 4개소(영월·평창·정선군 일원)
- 사업기간 : '17.2 ~ '17.11월
- 사업내용 : 노후 시설('05년)을 동강의 4계절을 주제로 홍보탐방객 휴게공간으로 개선

구 분	광하(봄)	기화(여름)	삼옥(가을)	고성(겨울)
테 마	동강할미꽃	황새여울의 어름치	추(秋)억의 동강	에스키모 이글루

② 감시시설 확충

- 위치 : 주요 진출입로 및 불법행위 우심지역(영월·평창·정선군 일원)
- 사업기간 : '17.7 ~ '17.9월
- 사업내용 : 주민감시원 관리초소(8개소) 및 감시시설(CCTV, 6개소), 차량진입 차단시설(5개소) 설치

□ **준공식 개요**

- (일시) 2017. 12. 22(금), 14:00 ~ 16:00
- (장소) 기화탐방안내소(본행사)*, 광하탐방안내소(시찰)**
* 강원 평창군 미탄면 평창동강로 515,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3043
- (주최) 원주지방환경청·평창군
- (참석대상)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국회의원, 도·군의원,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주민환경감시원, 자연환경해설사, 지역주민 등 100여명
- (행사내용)
 - 동강 탐방안내소 개선 및 감시시설 확충사업 경과보고
 - 축사 및 기념사
 -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 탐방안내소(기화, 광하), 백룡관리소 등 시찰



광하안내소



기화안내소



삼옥안내소



고성안내소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보호 강화

-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 등

-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요건 신설 예정
-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정비

-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 * (국가) 고용서비스 개발·정보통신망 운영, (자치단체)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고용서비스 제공, (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전문성 제고 등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등록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평등,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합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0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민간위원(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부위원(여가부장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행안·문체·농림·복지·고용·중기부 차관, 산업부 실장, 기재·교육·과기부 국장)

-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 2017.12.1~2019.11.30)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회의에서는 앞서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인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 분야 등 영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며, 1)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2)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3) “일과 생활의 균형”, 4)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기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여성의 능력개발

과 육성·지원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했습니다.

-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현재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 ‘양성평등’ 21.0%, ‘여성이 불평등’ 62.6%, ‘남성이 불평등’ 16.4%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6년)

-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실태조사(‘16.9~10월, ‘17. 3월 공표)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7월)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반영했습니다.

-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23.4%)’, ‘성별 임금격차 해소(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16.4%)’ 요구를 정책과제로 반영했습니다.

- 또한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실시,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포함했습니다.

-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제2차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 각 부처는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붙임】 1.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붙임 1**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구 분	구 성
위 원 장 (1)	국무총리
부위원장 (1)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13)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민간위원(10)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붙임 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1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	--------------------	--------------	-----------------

정책 과제	대과제 (6개)	중과제 (22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12.21, 경강선(원주 ~ 강릉) 개통행사 개최

서울-강릉 반나절 생활권...평창올림픽 50일 손님맞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2월 21일(목) 오후 2시 강릉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강선(원주~강릉) 철도 개통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지역 정·관계인사, 공사 참여자, 철도 관계자,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하며, 축하공연, 유공자 포상, 개통열차 시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강선(원주~강릉) 철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12월 22일(금)부터 서울~강릉간 KTX 운행이 시작되며, 서울을 출발한 KTX는 기존의 경의선, 중앙선 등의 노선을 지나, 원주부터 강릉까지는 신설.개통되는 경강선 구간을 이용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강릉 KTX 운행개시에 앞서, 지난 11.30부터 열차표 예매 증으로 현재 약 20.1%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호남선 등 다른 노선에 비하여 약 1.3~2배정도 높게 나타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 개통 하루 전 예매율 : 경부선 15%, 호남선 10.1%
- 한편, 서울~강릉 KTX 개통을 계기로 올림픽 개최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가까이 즐길 수 있게 됐다.
 - 우선, 대한민국 화가 2018명의 작품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향한 국민 염원 2018개가 담긴 아트배너가 강릉역사에 전시돼 올림픽 손님맞이에 나선다. 한만영, 윤명로, 김창렬, 김보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작가들은 물론 차세대 작가들이 참여했다.

- 문체부 관계자는 “올림픽의 길목이 될 강릉역사에 펼쳐지는 이번 전시가 강원도를 찾은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멋진 첫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평창 G-50일 서울~강릉간 고속열차 개통과 연계해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안목해변에서는 커피거리의 특색 있는 카페들에서 펼쳐지는 ‘강릉 커피 앤 재즈 페스타’가 열리고, 지난 15일 준공한 강릉올림픽아트센터에서는 강릉시향 정기연주회(22일)를 비롯해 한일 교류음악회(23일), 재즈가수 나윤선 콘서트(27일) 등이 잇따라 열린다.
- KTX 역사 인근에선 다양한 축제도 펼쳐진다. 우선, 진부역 인근 오대천변 축제장에서 ‘평창송어축제’(17.12.22~18.2.25)가 22일 막을 올려 얼음낚시, 맨손잡기 등의 송어낚시와 눈썰매, 스노우 붓슬레이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또, 강릉역 앞에는 올림픽 기간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웰컴 센터’가 설치되고, 강릉의 폐철도부지를 활용해 만든 ‘강릉 월화 거리’에서는 다채로운 축제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고 1

개통행사 일정표

행 사 내 용	일 정 시 간		비 고	
【식전행사】	(25분)		* 참석내빈은 13:20까지 입장완료	
○ 축하공연	13:35 ~ 13:50	15'	- 초대가수(홍진영)	
○ 행사안내	13:50 ~ 13:58	8'	- 장내정리	
○ 입 장	13:58 ~ 14:00	2'	- 총리님 입장	
【공식행사】	(35분)			
○ 개 식	14:00 ~ 14:01	1'	- 사회자	
○ 국민의례	14:01 ~ 14:06	5'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등	
○ 경과보고	14:06 ~ 14:08	2'	- PT 영상자료	
○ 홍보영상물 상영	14:08 ~ 14:12	4'	- 철도건설 및 효과 홍보 영상	
○ 환 영 사	14:12 ~ 14:15	3'	- 강원도지사	
	14:15 ~ 14:18	3'	- 권성동 의원(강릉시, 법사위위원장)	
○ 유공자 포상	14:18 ~ 14:25	7'	- 총리님 (수상자 기념촬영 포함)	
○ 축 사	14:25 ~ 14:31	6'	- 총리님	
○ 개통퍼포먼스	14:31 ~ 14:34	3'	- 기념촬영 및 세리머니 연출	
○ 폐 식	14:34 ~ 14:35	1'	- 사회자 폐식 선언	
【식후행사】	(20분)			
○ 홍보관 이동	14:35 ~ 14:37	2'	- 행사장 → 홍보관(강릉역사 內)	
○ 홍보관 참관	14:37 ~ 14:45	8'	- 원주강릉 철도사업 홍보관 참관	
○ 시승행사장 이동	14:45 ~ 14:47	2'	- 홍보관 → 3번 승강장(B1)	
○ 개통 열차 시찰	승무신고	14:47 ~ 14:50	3'	
	명 명 식	14:50 ~ 14:52	2'	- 열차 명명식 ('KTX 평창' 랩핑 열차)
	시 찰	14:52 ~ 14:55	3'	- KTX 운전실 시찰
○ 시 승	14:55		- KTX 탑승 (강릉역→서울역)	

참고 2

평창올림픽 계기 관광체험 프로그램

구분	행사명	내용	기간	장소
축제	진부송어축제	-송어 얼음낚시, 퍼레이드 등 얼음 테마 축제	'17.12.22 ~'18.2.25	평창
	강릉 재즈 은 더 커피	-강릉 커피거리 카페 버스킹 공연	'17.12.21~24 '18.2~3월	강릉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	-눈을 테마로 한 축제 개최 * 올림픽 플라자 인근	'18.2.7~22	평창
	강릉 겨울 퍼포먼스 페스티벌	-길놀이 퍼포먼스, 전통놀이체험, 문화공연 -단종 국장재현, 대도호부사행차, 효도배례 등	'18.2.6~25	강릉
	정선고드름축제	-고드름 정원, 얼음낚시, 민속공연 등	'18.2.7~23	정선
	윈터댄싱카니발	-댄싱카니발, 군악, K-pop, 프린지 공연 등	'18.2.10~18	원주
공연	평창 겨울음악제	-대관령음악제의 겨울버전으로, 클래식·재즈·판소리 초청 공연 * 정명화, 안숙선, 손열음 등	'18.1.30~31 /2.1~3/2.16	서울, 강릉, 춘천, 원주
	오페라 '동백아가씨'	-'라 트라비아타'를 조선 양반을 배경으로 재해석	'18.1.19~ 1.20	강릉아트센터
	발레 '안나카레니나'	-대문호 톨스토이의 동명 소설에 크리스티안 슈콕의 안무가 더해진 발레의 고전	'18.2.10~11	강릉아트센터
	발레 '허난설현'	-조선 중기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현의 삶과 시를 담은 창작발레 공연	'18.2.12	강릉아트센터
	전문단체 초청공연	-올림픽 기간 : 101개 공연단, 120회 공연 -패럴림픽 기간 : 37개 공연단 47회 공연	'18.2.3~2.25 '18.3.9~3.18	강릉, 평창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	-아리랑공연, 전통문화 체험행사, 아리랑전수 프로그램	'18.2~3월	정선
	K-POP콘서트	-유명 K-POP스타 초청공연(총 4회)	'18.2~3월	강릉
전시	평창올림픽 예술포스터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예술포스터 및 역대 올림픽 포스터 등 전시	'17.2월 ~'18.3.18	서울
	아트배너전ALL CONNECTED	-국민 염원을 모아 2018개 아트배너 전시	'17.12.21 ~'18.1월	강릉역
	스페셜 테마 퍼포 먼스	-한국의 춤과 퍼포먼스, 첨단 무대기술로 만든 신화의 세계에 해학이 있는 년버벌 퍼포먼스	'18.2.3~24	원주대 해람문화관
	체험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	-자연환경을 활용한 야간 체험형 미디어아트 쇼와 다양한 볼거리 조성	'18.2.3~3.18	솔향수목원
	비치인스톨 아트	-경포 해변 배경, 국내외 아티스트 작품전시	'18.2.3~3.18	경포해변
	달빛호수 별빛거리	-조형물설치 야간 조명 ('18.2.3~3.18) -미디어아트 퍼포먼스('18.2.3~25)	'18.2~3월	경포호 일원
	강원도 문화유산 전시	-강원도 역사인물, 예술작품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구성·전시	'18.2.3~3.18	강릉
올림픽 설치미술전시	-국내외 30여 작품 제작·전시	'18.2~3월	강릉	

구분	행 사 명	내 용	기 간	장 소
	강원국제비엔날레	-미술작품 전시, 학술행사 등	'18.2.3~3.18	강릉
	DMZ평화예술제	-전시(조각,그림,사진), 공연(음악제,행위 예술)	'18.2~3월	접경지역
	국보급 문화유산특별전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등	'18.1~3월	강릉,평창
쇼핑	강원그랜드세일	-코리아 그랜드 세일 연계, 강원지역 축제, 스키 관광상품, 외국인 할인행사 및 홍보부스 운영	'18.1.18 ~2.28	강원일원
	사후면세점	-강릉(금성로), 춘천(명동) 사후면세점거리	연 중	강릉,춘천
	8도장터 명품관	-전국 우수전통시장 대표 상품, 특화 먹거리, 전통문화 체험 운영	'18.1.25~3.25	평창
	거점시장 관광상품	-개최지 대표시장(10곳) 대상 관광지, 전통시장 연계 투어버스 운영 및 외국인 안내 인력 배치	'18.1.25~3.25	개최 시군

<서울~강릉 고속열차 개통 계기 강릉올림픽아트센터 공연 목록>

일 시	제 목	장 소
12. 22.(금)	강릉시향 100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12. 23.(토)	강릉 8개 연합고교 '2017강릉관악제'	"
12. 23.(토)	한일교류음악회 '강릉에서 도쿄까지'	소공연장
12. 26.(화)	실내악 프로젝트 '클래식레이디'	"
12. 27.(수)	재즈가수 나윤선 콘서트	대공연장
12. 28.(목)	창작음악극 '월화전'	소공연장
12. 29.(금)	강릉청소년연합합창 '0을 위한 노래'	대공연장
12. 30.(토)	새로운 지평을 향해	"

참고 3

강릉역사 아트배너전 현장 이미지

【사진1】



【사진2】



완전양식 어린 명태 15만여 마리, 동해바다로 떠난다

- 12.15 강원 고성군 대진항에서 인공 2세대 어린명태 방류... 명태자원 회복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5일(금)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앞바다와 고성군 연안(저도어장) 보호수면에 어린명태 15만 1천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자, 어업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명태(몸길이 7~20cm)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로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약 10개월간 사육하였으며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 방류한 명태와 같은 세대이다.

* 명태완전양식기술 :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생산·부화시켜 키운 어린 명태를 어미로 키워서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순환체계가 구축되는 것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14~)'를 공동 추진하며 2015년에 처음으로 인공 1세대 명태 1만 5천 마리를 방류하였다. 이후 완전양식을 통해 인공 2세대 명태를 얻었으며, 올해 5월(15만 마리)과 12월(15만 1천 마리)에 총 30만 1천 마리를 방류함으로써 최초방류 이후 2년 만에 20배에 달하는 방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15일 방류행사에서는 대진항 연안 수면에 약 1천 마리의 어린 명태를 방류하고, 이후 배로 이동하여 보호수면에 15만 마리의 어린명태를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 이후에는 어미명태로부터 확보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서식 추이를 관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어획 혼획률에 따른 방류효과 조사 및 추적 등

이번에 어린명태가 방류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의 보호수면은 명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및 지역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곳이다. 보호수면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어로한계선 북측해역 일원으로, 지정면적은 21.49km²(여의도 면적의 7.4배), 운영기간은 4년('15.10.13~'19.10.12)으로 해당기간 동안 이 수역에서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과 올해 동해에서 포획한 명태의 유전자 분석 및 부착표지 확인을 통해 기존에 방류한 명태가 잘 정착*하여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방류되는 명태 역시 자연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우리 명태 자원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5년, 2016년 표지를 부착하여 방류한 명태가 2016년, 2017년 각각 동해안에서 어획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에 방류할 어린명태들이 우리 식탁에서 다시 국산 명태를 만날 수 있게 해줄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100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인공양식 명태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차관은 명태 방류행사 이후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위치한 해수플랜트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해수온도차 발전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층수 취수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 1**어린 명태 방류 세부계획**

□ 목 적 : 명태 자원회복을 위하여 인공 2세대 어린 명태 15만 마리를 강원도 고성연안에 방류

* '17년도 방류 목표 : 30만마리 / 실적 15만마리('17.5), 금회 15만마리 계획

□ 일시/장소 : '17. 12. 15(금), 13:30 ~ 14:30 / 대진항(강원 고성군)

□ 참 석 : 해양수산부 차관, 고성군수, 고성의회의장,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환동해본부장,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지역어업인 등 약 30명

□ 주요내용 : 어린 명태(약 15만마리) 방류

○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사육한 인공 2세대 명태 약 15만 마리 강원도 보호수면 해상에서 방류 실시

* (육상) 방류행사 시 대진항 연안에 약1천 마리 / (해상) 고성군 연안 보호수면에 약15만 마리 해상방류 실시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35~ 13:40	5'	경과 및 현황보고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13:50~ 14:00	10'	명태 치어 방류(1천 마리)	대진항
14:00~ 14:10	10'	방류 어선* 환송	
14:10~ 14:40	30'	방류지점 이동(대진항 → 방류해상)	해상 방류어선
14:40~ 15:10	30'	명태 치어 방류(15만 마리)	해상 방류어선
15:10~ 15:40	30'	이 동(방류해상 → 대진항)	

* 세부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류수량) 명태 인공종묘 총 사육수량(약 20마리) 중 약 15만마리(해상 직접방류 15만마리, 육상방류 1천마리)를 해상 방류 실시
- 방류치어는 육상 수조에서 약 10개월간 사육한 크기 7~20cm를 방류
- (방류시기·장소) 국내산 명태의 산란장 및 회유경로* 등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일부 인공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생태학적 연구 지속 추진
 - * 어업인 신고 및 어획시험조사에 따른 분포 분석 결과 → 고성·아이진·속초 등으로 추정
- (일시) '17. 12.15(금) 13:30~16:00 / 예상수온 11°C
 - (육상) 고성군 대진항 : 방류행사시 약 1천마리 방류
 - (해상) 고성군 연안 보호수면 : 육상방류행사 직후 약 15만마리 방류

참고 2 방류행사장 및 보호수면 지정위치

육상방류



해상방류

